

# “의대 자율증원, 9개교 숫자 정했다”

### 국립 경북·경상국립·제주대, 건의 적극 동참해 50% ↓ 사립 가천·계명·대구가톨릭·영남·인제·조선대는 100% 27년만 의대 증원 ‘손해 보지 않을까’... ‘눈치싸움’ 치열 충북대, 도지사까지 뛰어들어 진통... 23곳 아직 미정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자율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선발 규모를 결정한 대학이 9곳으로 파악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체로 증원분의 50%만 뽑겠다는 분위기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반면 사립대에서는 늘어난 정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를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1600명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아 유동적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거나 방침을 굳힌 대학은 증원된 전체 32곳 중 가천대·경북대·경상국립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인제대·제주대·조선대 9곳이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일원인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3곳은 모두 증원 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는 기존 110명에 90명을 추가 배정 받았으나 이번엔 50%인 45명만 늘리기로 했다. 경상국립대(기존 76명, 124명 증원)는 62명, 제주대(기존 40명, 60명 증원)는 30명을 증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사립대인 가천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인제대·조선대 6곳은 증원 받은 의대 정원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27년 만의 증원 기회를 놓치지 어렵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천대는 기존 40명에 증원분 90명을 그대로 합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낸다는 방침이

다. 증원 전 40명 규모로 '미니 의대'였던 대구가톨릭대도 추가 배정 받은 40명을 줄이지 않겠다던 입장이다.

기존 76명인 계명대와 영남대는 각각 44명을 배정 받았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제출했다. 의대 정원이 비교적 적게 늘어난 인제대(기존 93명, 7명 증원)와 조선대(기존 125명, 증원 25명)도 증원분을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

대학에게 학생 수 감소 속에서 신입생 총원과 대학 인지도 상승을 보장하는 의대 정원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감축 여부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적은 규모에서 늘었지만 다른 대학보다 많은 편도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거나 불확실한 대학은 증원이 이뤄진 32곳 중 23곳이다. 이 중 사립대가 17곳이고 남은 6곳은 국립대다.

“자율 증원” 건의에 참여한 3곳인 강원대와 충남대, 충북대는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151명을 배분 받아 기존 49명을 200명으로 4배 늘려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충북대는 학내 진동이 크다.

충북대 본부는 증원분을 정부 허용 최소치인 50%만 반영하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10~25%를 주장하고 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증원분 100%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부산대 측은 증원분을 줄일 예정이라 밝혔지만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본부는 (증원분을) 100% 다 반영하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전남대는 모집인원 조정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증원분 '100% 신장'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직 모집인원을 못 정한 17곳 중 12곳이 증원 전 40명대였던 '미니 의대'다. 또 연세대 분교(원주, 7명 증원)나 고신대·한림대(각각 24명 증원) 등 3곳은 증원된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일부 예외도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는 증원분 10~50%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대는 기존 정원이 40명이었고, 추가로 80명을 배정 받았다.

전체 32개교 중 절반인 16개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거나 오는 30일까지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대학들은 주말이나 이번주 초까지 타 대학 동향과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방침을 밝히지 않은 국립대가 증원분의 50%, 사립대는 100%를 낸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657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립대 9곳 모두가 증원분을 절반씩 줄여 자율 감축에 적극 동참한다면 증원 규모는 1591명이 된다.

그러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대가 대다수라 증원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1800명대에서 1200명대까지 유동적이다.

앞서 지난달 5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목표치(2000명)를 훌쩍 뛰어넘은 3401명을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눈치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지 넘겨짚기는 아직 선부르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김희면기자



### 여수해경, 복합 해양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개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대규모 해양오염을 동반하는 화재 폭발, 좌초 사고 등과 같은 복합 해양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 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담양소방, 노유자 의료시설 피난안전성 확보 위한 지도점검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불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유자 의료시설을 방문하여 피난안전성 확보와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 동부소방, 봄철 공사장 화재 대비 관서장 현장 지도점검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동구 관내 소재 공사 현장에 방문해 화재 예방 및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관서장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곡성소방, 건축 공사장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신화휴리브 센트럴 곡성]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 순천경찰, ‘중앙동 안심마실단·기동순찰대’ 합동순찰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25일 밤, 치안수요가 높은 순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범죄예방대응과, 중앙동 안심마실단, 전남청 기동순찰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장흥경찰, ‘수사파트너십포럼’ 회원 위촉·간담회 개최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지난 25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참여치안 관련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10명의 회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송치

### 작년 4월 광주서 “5·18 북한 소행”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음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

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

이슬비기자



### ‘더위를 피해요’

한낮 기온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바닷분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뉴시스

## 광주→김제 90km 폭주 50대, 차량 바퀴에 실탄 쏘 검거

경찰이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를 47분간 추격, 차량 바퀴에 실탄까지 쏘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부터 오전 10시 5분 사이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 내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90여km를 자가용으로 달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들며 차량을 마구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승용차를 뒤쫓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접촉사고를 2차례 내기도 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정차 명령을 거듭 어기며 달아난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실탄 2발을 쏘 간신히 멈췄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었으나 과거에도 여러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등 전력이 있었으며 조만간 운전면허 취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